주간브리프
WEEKLY ISSUE BRIEF 2025. 11. 17. Vol. 43

KDI, 2026년 국내 경제 성장률 1.8% 전망

- 2025년 11월 11일 한국개발연구원(KDI)가 발표한 「2025년 하반기 경제전망」에서 2026년 우리 경제는 수출 둔화에도 불구하고 내수 회복세를 중심으로 1.8%* 성장할 것으로 전망함.
  - 민간소비는 시장금리 하락세와 확장적 재정정책 등으로 금년(1.3%)보다 높은 1.6% 증가할 전망
  - 설비투자는 반도체를 제외한 부문의 미약한 흐름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관련 투자 수요가 높은 수준을 지속함에 따라 금년(2.5%)에 이어 2.0%의 완만한 증가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
  - 건설투자는 금년(-9.1%) 큰 폭의 감소에서 2.2% 증가로 전환되며 부진이 일부 완화될 전망
  - 수출은 선제적 수출효과가 축소되는 가운데, 미국 관세인상의 부정적 영향이 본격적으로 파급되면서 금년(4.1%)보다 낮은 1.3% 수준으로 증가할 전망
  - 경상수지는 수출 둔화에도 불구하고 교역조건이 개선되며 대규모 흑자 추세가 지속될 전망

  *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 10월 발표한 우리나라의 2026년 경제성장률 전망치인 1.8%와 동일

- 소비자물가는 내수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국제유가 하락으로 금년(2.1%)과 유사한 2.0% 가량 상승할 전망임. 근원물가(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는 내수 회복으로 금년(1.9%)보다 높은 2.2% 수준으로 상승할 전망임.

- 내수 회복세에 따라 고용 여건도 완만하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나,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으로 취업자 수는 금년(17만 명)보다 축소된 15만 명 정도 증가할 전망임.

- (위험요인) 통상 관련 불확실성(미국 관세율, 법적 이슈 등)이 우리 수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환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경우 물가 상승 압력이 확대될 가능성이 존재함.
  - 한-미 무역협정 진전과 미-중 무역 긴장 완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요 수출 품목에 적용되는 관세율과 적용 시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잔존함. 또한, 광범위한 관세 부과에 대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통상 불확실성이 급격히 확대될 가능성이 존재함.
  - 경기 개선으로 인한 수요 증가로 인해 물가 하방 압력이 축소될 전망임. 더불어, 9월말 이후 지속되고 있는 환율 상승의 영향이 반영되면 물가상승률이 목표치(2%)를 다소 상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음.

▌KDI 2026년 경제전망 ▐

(전년 동기 대비, %, 억 달러, 만 명)

	2024p	2025p			2026		
	연간p	상반기p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국내총생산	2.0	0.3	1.5	0.9	2.1	1.6	1.8
민간소비	1.1	0.7	1.8	1.3	2.2	1.1	1.6
설비투자	1.7	4.5	0.6	2.5	2.5	1.4	2.0
건설투자	-3.3	-12.2	-6.0	-9.1	1.0	3.3	2.2
총수출(물량)	6.8	3.0	5.1	4.1	2.7	-0.2	1.3
소비자물가	2.3	2.1	2.1	2.1	2.0	2.0	2.0
실업률	2.8	3.1	2.5	2.8	3.1	2.5	2.8

주: p는 잠정치임.
자료: KDI(2025.11.11).

▌국제기구 2026년 경제전망 ▐

	OECD (2025.9)	IMF (2025.10)
세계	2.9	3.1
선진국	1.3	1.6
미국	1.5	2.1
유로존	1.0	1.1
한국	2.2	1.8
일본	0.5	0.6
중국	4.4	4.2
러시아	0.7	1.0

자료: OECD(2025. Sep); IMF(2025. Oc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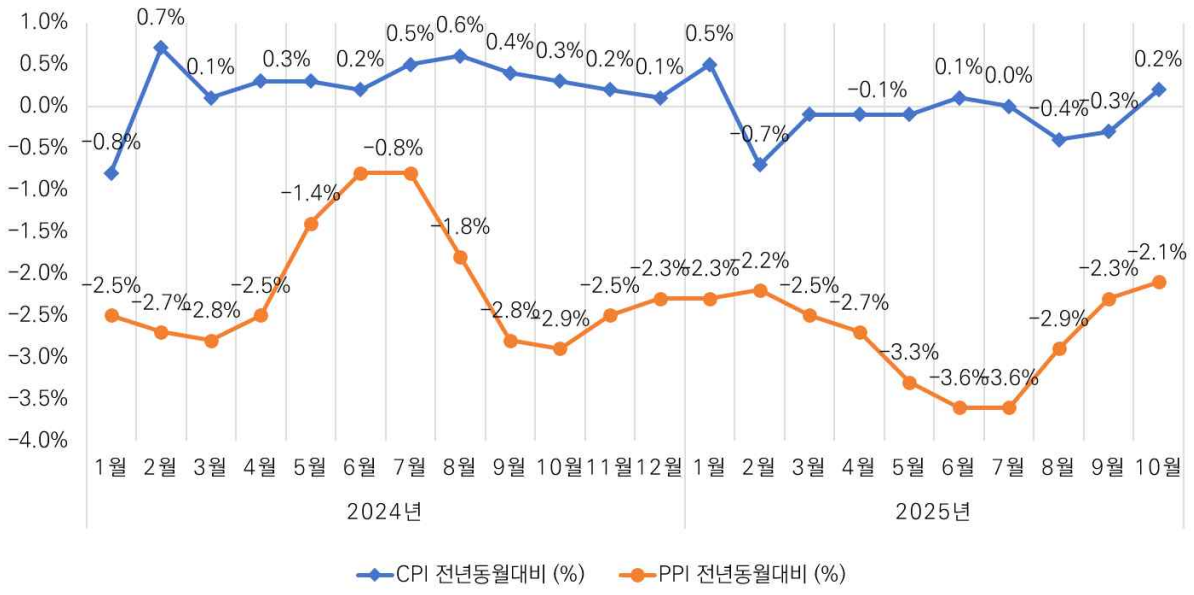
세계 경제 동향

○ 중국 10월 소비자물가 0.2% 상승, 생산자물가는 하락 지속 ▌2025-11-9 ; 2025-11-10 중국 국가통계국

- 2025년 11월 10일 중국 국가통계국은 2025년 10월 소비자물가지수(Consumer Price Index, CPI)가 전년 동월 대비 0.2% 상승했다고 발표함(전월 대비 0.2% 상승).
  - 중국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 8월(-0.4%), 9월(-0.3%) 마이너스를 기록한 이후, 10월 플러스로 전환
- (지역별 전년 동월 대비) 도시 지역의 물가는 0.3% 상승한 반면, 농촌 지역은 0.2% 하락함.
- (품목별 전년 동월 대비) 식품 물가는 2.9% 하락한 반면, 비식품 물가는 0.9% 상승함.
  - (식품) 신선채소(-7.3%), 육류(-7.4%), 달걀(-11.6%), 신선과일(-2.0%), 곡물(-0.7%) 등이 하락
  - (비식품) 의류(+1.7%), 생활용품 및 서비스(+1.9%), 보건의료 서비스 (+1.4%), 교육·문화·오락(0.9%), 기타 용품 및 서비스(+12.8%), 주거(+0.1%) 등은 상승
- 한편, 2025년 11월 9일 중국 국가통계국은 2025년 10월 생산자물가지수(Producer Price Index, PPI)가 전년 동월 대비 2.1% 하락했다고 발표함(전월 대비 0.1% 상승).
  - 중국 생산자물가지수는 지난 8월부터 점차 하락 폭이 줄고 있으나, 37개월 연속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음.
- (부문별 전년 동월 대비) 생산재 출하가격은 2.4% 하락했고, 소비재 출하가격도 1.4% 하락함.
  - (생산재) 채굴산업(-7.8%), 원자재산업(-2.5%), 가공산업(-1.9%)에서 출하가격 하락
  - (소비재) 식품(-1.6%), 의류(-0.3%), 내구소비재(-3.2%)에서 출하가격이 하락한 반면, 일반 일용품 출하가격은 1.0% 상승함.

❖ CPI가 3개월 만에 상승세(+)로 전환했음에도 불구하고, 37개월째 마이너스를 기록한 PPI는 중국 경제가 여전히 디플레이션 압력에 놓여있으며, 수요 부족과 공급 과잉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을 시사함.

▌2024~25년 중국 소비자물가지수 및 생산자물가지수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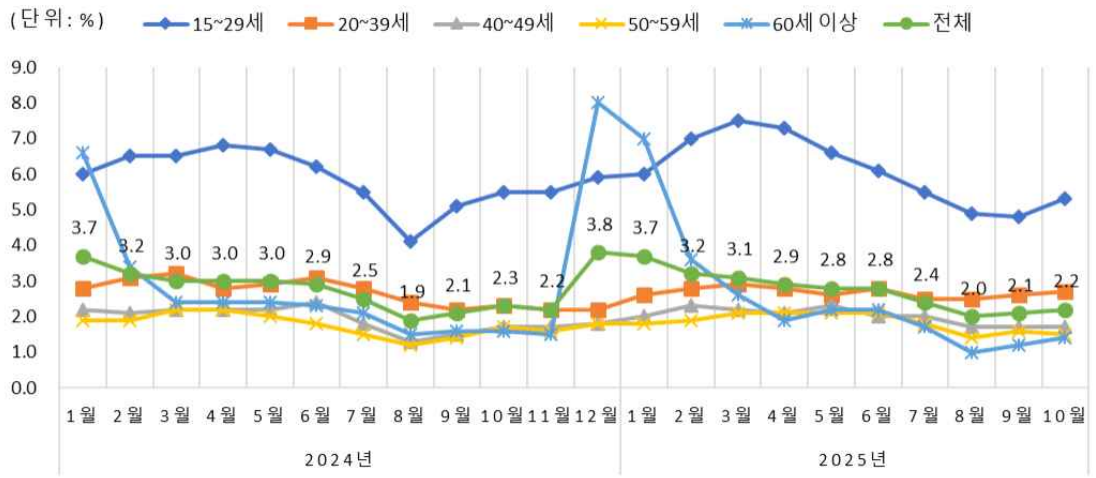
국내 경제 동향

10월 실업률 2.2%, 청년층 실업률 5.3% ▌2025-11-12 국가데이터처

- 2025년 11월 12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10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10월 실업률은 2.2%로 전년 동월 대비 0.1%p 하락함.
  - 2025년 10월 취업자는 2,904만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9만 3천 명 증가
  - 15~64세 고용률(OECD 비교 기준)은 70.1%로 전년 동월 대비 0.3%p 상승
- (산업별 고용)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28만 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7만 명), 도·소매업(+4만 6천 명) 등에서 증가하였음. 반면, 농림어업(-12만 4천 명), 건설업(-12만 3천 명), 제조업(-5만 1천명) 등에서 감소함.
- (연령별 고용) 60대 이상(+33만 4천 명)과 30대(+8만 명)에서 증가하였으나, 나머지 20대(-15만 3천 명), 40대(-3만 8천 명), 50대(-1만 9천 명) 등에서 감소
  -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5.3%로 전년 동월 대비 0.2%p 하락
  -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44.6%로 전년 동월 대비 1.0%p 하락
- (종사상 지위별)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28만 8천 명)와 임시근로자(+7만 9천 명)는 증가했으나, 일용근로자는 5만 5천 명 감소함.
  - 비임금근로자는 11만 8천 명 감소
- (비경제활동인구) 10월 비경제활동인구는 1,612만 1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만 8천 명(+0.2%) 증가함.
  - '쉬었음' 인구는 60세 이상(+9만 4천 명, 전년 동월 대비 +8.9%)과 30대(+2만 4천 명, +7.7%) 등에서 증가

❖ 청년층(15~29세)의 고용률과 실업률의 동반 하락은 청년들이 구직 활동을 포기하고 비경제활동인구로 이탈하고 있음을 시사함.

▌2024년 1월~2025년 10월 실업률 ▌



세계 농업·농정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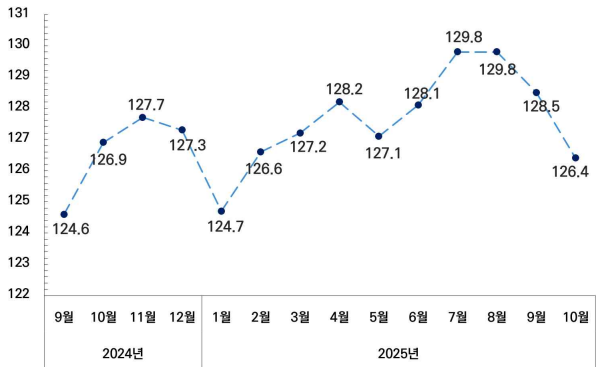
FAO, 10월 세계식량가격지수 발표 ▌2025-11-07 농림축산식품부 ; FA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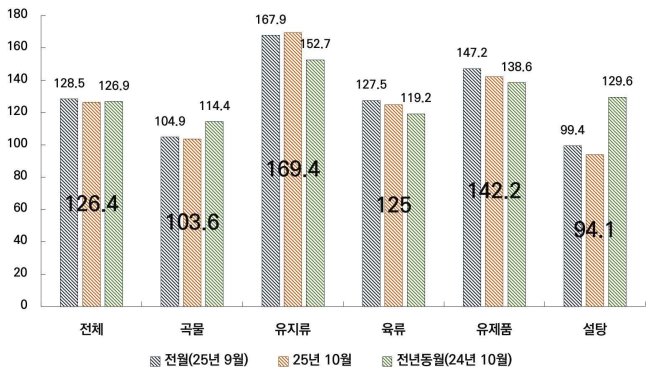
- 유엔 식량농업기구(FAO)는 2025년 10월 세계식량가격지수가 전월(128.5포인트) 대비 2.1포인트 하락한 126.4포인트를 기록했다고 발표함.
- 유지류를 제외한 곡물·육류·유제품·설탕이 모두 하락했고, 설탕은 2020년 12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함.
- 전년 동월 대비로는 곡물과 설탕이 크게 낮아진 반면, 유지류·육류·유제품은 상승세를 유지함.
  - (곡물 가격) 북반구 파종 진전과 남반구 생산 전망 개선으로 전월 대비 1.3% 하락, 전년 대비 9.4% 하락
  - (유지류 가격) 흑해 지역 공급 지연과 일부 국가의 바이오디젤 수요 변수로 전월 대비 0.9% 상승, 전년 대비 11.0% 상승
  - (유제품 가격) EU·뉴질랜드 공급 확대와 수요 둔화로 전월 대비 3.4% 하락, 전년 대비 2.6% 상승
  - (설탕 가격) 브라질 생산 호조와 아시아 작황 개선으로 전월 대비 5.3% 하락, 전년 대비 27.4% 하락
  - (육류 가격) 중국·EU 수요 조정 영향으로 전월 대비 2.0% 하락, 전년 대비 4.8% 상승

▌세계식량가격지수 품목별 세부 동향 ▐

품목	가격 변동		주요 배경 및 요인
	전월대비	전년 동월 대비	
곡물	-1.3%	-9.4%	· (밀·보리·옥수수·수수) 북반구 파종 확대와 남반구 생산 여건 개선으로 하락했으며, EU·미국의 옥수수 수확 감소 우려와 미·중 협상 기대는 하락 폭을 완화하는 요인으로 작용 · (쌀) 주요 재배국 생산 확대 기대와 수요 둔화로 전월 대비 하락
유지류	+0.9%	+11.0%	· (팜유) 주요 생산국 동남아시아의 바이오디젤 정책 영향으로 가격이 소폭 반등 · (해바라기유) 흑해 지역 공급 지연으로 4개월 연속 상승세 · (대두유·유채유) 유럽의 공급 부족과 브라질·미국의 내수 수요 증가로 강세 유지
육류	-2.0%	+4.8%	· (돼지고기·가금육) EU의 공급 과잉, 중국의 신규 관세, 조류인플루엔자(HPAI)에 따른 브라질 수출 제한 등의 영향으로 가격 급락 · (쇠고기) 호주산 중심으로 유통 가격 상승
유제품	-3.4%	+2.6%	· (버터·탈지분유·전지분유·치즈) EU·뉴질랜드 생산 증가와 수요 둔화로 전 품목 하락
설탕	-5.3%	-27.4%	· 브라질의 수확 호조와 인도·태국의 공급 전망 개선으로 하락 · 국제 유가 하락에 따른 바이오연료 수요 감소가 추가 하락 요인으로 작용

▌2024년 9월~ 2025년 10월 전체 및 품목별 세계식량가격지수 추이 ▐





국내 농업·농정 동향

○ 온라인도매시장, 지역 유통 참여 확대 및 유통 비용 감축 ▌2025-11-04, 2025-11-07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연간 거래액이 1조 원을 돌파했다고 발표함.
  - 전년 대비 일평균 거래금액은 18.4억 원에서 32.6억 원(+77%), 참여 업체는 3,804개소에서 5,272개소(+39%)로 확대
  - 온라인도매시장은 생산자-소매업체 간 비대면 직거래 기반의 디지털 플랫폼형 도매시장으로, 산지에서 소비지로 바로 배송되어 물류비 절감 및 가격 투명성 제고 효과가 있음.
- 거래 품목별로는 청과류(46.4%), 축산물(40.5%), 양곡(8.2%), 수산물(4.9%) 순으로 비중이 높았으며, 청과류의 산지 직배송 비율은 65.7%에서 75.9%로 확대됨.
  - 산지-소비지 직거래 비중 또한 28%에서 44.1%로 크게 증가하며, 온라인도매시장이 실질적 유통경로로 자리매김
- 유통비용 절감 및 거래 효율성이 주요 성과로 확인됨.
  - (충북 스테비아 방울토마토) 온라인 직거래 전환 후 오프라인 거래 대비 유통비용 감소 및 농가수취가격 증가
  - (KG케미칼) 오프라인 도매시장 경유 대신 산지 직공급 체계 전환, 물류 효율성 향상
  - (경남 거제 슈퍼마켓협동조합) 다품목 소량 합배송으로 기존 대비 물류비 12.4% 절감, 거래 만족도 제고
- 정부는 거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물류적 지원 강화 방안을 마련·추진 중임.
  - 판매자 가입 요건을 기존 매출액 20억 원에서 25년 9월 10억 원으로 완화하였고, 26년 9월 면제까지 완화할 예정
  - 공동집하장 운영·전용 물류체계 구축 및 경매·역경매* 기능 도입을 통해 농업인 가격 결정권 강화 추진

*도매시장 경매는 출하자가 내놓은 상품에 중도매인 등이 경쟁 입찰해 최고가로 낙찰되는 방식이며, 역경매는 중도매인·도매법인이 필요한 물량을 제시하면 출하자가 경쟁적으로 가격을 낮춰 최저가 공급자가 선정되는 방식

▌온·오프라인 도매시장 유통 구조 ▌

